

인터넷 수업에서의 CEDA(Cross 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 토론 모델연구

Developing CEDA Model for Internet-based Class

조은순
목원대학교

Eun-Soon Cho(echos@mokwon.ac.kr)

요약

본 연구는 미국의 토론 모형인 CEDA (Cross 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방식을 인터넷 토론학습에 적용하는 새로운 시도를 통하여 향후 인터넷 수업에 응용할 수 있는 CEDA형 인터넷 토론수업 모델을 설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본 연구는 미국의 CEDA토론 기법의 기본 요소를 인터넷 토론학습모델에 적용한 수업설계를 통하여 1,2차에 걸쳐 각각 200명의 학습자들에게 인터넷 CEDA 토론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토론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학생들은 인터넷 CEDA 토론학습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으며, 기존의 개방형 토론방법보다 찬반형의 CEDA토론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2차 연구에서는 토론에서 튜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튜터의 전략에 따라 토론결과가 달라 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스스로 토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튜터의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으로 본 연구는 CEDA형 인터넷 토론학습 모델이 학교현장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교과목별, 학습자별 다양한 토론학습 모델이 개발되어야 하며 학습자 입장에서 토론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 중심어 : | 이러닝 토론 | 인터넷 | CEDA모델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internet CEDA(Cross 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 debating model for the internet-based learning. Comparing to open discussion model that is widely spreaded in regular classes, the CEDA model can enhance learner's thinking skills, logicity, analytic skills, and judgement ability. In the first study, 196 students were provided the specific CEDA model guideline and participated debate activities through the internet. The results of the students' debate were analyzed based on the evaluation criteria.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tudents' evaluation scores were high overall. They favored the CEDA model over the open discussion model, and showed positive attitudes and perceptions on the CEDA internet debate activity. In the second study, another 200 students were participated in two different tutor supporting CEDA debating groups, one is advanced tutor strategy group and the other is general tutor strategy group.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dvanced tutor supporting group had significantly high scores on the cross examination and providing evidence on debating. This study finally suggests the CEDA internet model for general use. In conclusion, this study also suggests the next steps to elaborate the CEDA internet model not only for the university settings, but also for general school settings. The user manuals should be developed to assist instructors, students, and tutors to guide better debate activities through the internet CEDA class. Also further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provide various debate models and applications for the variety of learning environments, and so the schools to use the CEDA model more widely in the internet classes.

■ keyword : | e-Learning Debate | e-Learning | CEDA Model |

I. 서론

인터넷 교육의 양적 증가에 따른 질적 향상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집단사고 및 문제해결을 위한 온라인상에서의 토론에 관한 관심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10][13][16][22][25]. 반면 학습자 수행중심의 인터넷 협동학습, 토론학습 등에 대한 비중과 중요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토론학습이 수업현장에서는 외면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1) 학생들의 토론경험 부족 (2) 토론을 위한 충분한 자료와 시간 부족 (3) 참여자들 간의 상호협조 및 노력미흡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7][16][25]. 이는 각급 교육기관들이 토론학습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을 개발하고 이를 확산하려고 하는 해외의 사례와 비교된다[27]. 최근 들어 인터넷 토론 학습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실제 인터넷에서 토론을 실시해본 학습자들은 인터넷 토론학습에서 자신들의 토론경험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인적지원활동(사이버튜터, 조장 등), 물적지원활동(참고자료, 인터넷 기능 강화 등)을 요청하고 있다[10][11]. 또한 온라인상에서 교수자 혹은 튜터의 활동 등 토론학습 운영전반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12][17][25]. 특히, 온라인상에서 토론시 참여도 증가 등 긍정적인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활발한 토론을 위한 수업전략과 학습활동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상당히 미흡한 편이다[3][20].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미국에서 효과적인 찬반형 토론모델로 인정받고 있는 CEDA (Cross 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 이하 CEDA)유형을 대학생들의 인터넷 수업에 적용하여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로 적극적인 토론수업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 결과를 분석한 후, 향후 인터넷 토론수업에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업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는 1) CEDA 토론모델인 인터넷에서도 학습효과성이 있는가 2) CEDA 인터넷 수업에서 튜터의 역할이 필요한가 3) 현장 수업에서 적용 가능한 인터넷 CEDA 수업모델은 무엇인가의 3가지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분석

1. 토론 수업의 개념 및 적용

토론(debate)은 주어진 논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대립되는 주장과 이를 검증하는 과정인 반면, 토의(discussion)는 정해진 규칙이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일종의 의사결정 과정이다. 토의가 참여자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이라면, 토론에서는 사실, 논거, 근거를 기본으로 개인의 주장을 펼쳐나가게 된다[1]. 토론은 학문의 분야로 발전하는 반면, 토의는 대화와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이면서 논리와 근거를 중심으로 의견을 펼쳐가는 토론의 개념에서 연구를 이끌어 가고자 한다.

온라인 토론 또는 인터넷 학습에서의 토론학습의 효과성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대화와 토론의 방법을 모두 합쳐서 토론이라 보고 있으며, 일단 수업현장에서 학습자들 상호간 혹은 학습자와 교수자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채널만 확보되었다면 토론의 기회가 제공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 간의 대화가 학습을 증진시킨다는 연구결과는 상당히 많이 있으며[6][7][19][24], 온라인 형태의 대화방식을 통한 학습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도 많은 편이다[2][14][15][21][26], 또한 학습자간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성은 여러 문헌에서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다[8][29]. 하지만 온라인 토론과 관련된 많은 연구 논문들이 주로 학습자들의 성향에 따른 학습전략연구[3-5][9], 학습태도연구[8], 교수-학습의 부분적 학습활동으로서 교수설계 연구[18][20], 등의 넓은 범주에서 교수-학습과정에 포함되는 주제들로 한정되어 있고, 토론의 근본 취지와 토론에 포함되는 중요구성 요소들을 고려한 토론 수업용 설계전략은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2. 인터넷 CEDA 형 토론

인터넷수업에 적용 가능한 CEDA형 토론에서 각 참여자는 주어진 시간과 방법에 따라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토론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분석한 다음 질문을 통해 내용조사를 할 수 있으며, 진행된 토론에 대한 평가를 위한 기준은 토론자의 논리력, 분석, 반박력, 스타일과 수사,

팀워크 등이 된다.

CEDA형 토론에는 가치토론과 정책토론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CEDA에서 많이 쓰이는 가치토론 형식은 토론이 전개되는 상황을 단계별로 보여주는 것이다. 각 참여자는 주어진 시간과 방법에 따라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토론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분석한 다음 질문을 통한 내용조사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일반적인 순서는 [표 1]과 같다.

표 1. CEDA 토론 진행방법

1. 긍정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문
2. 부정측 두 번째 토론자의 교차조사
3. 부정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문
4. 긍정측 첫 번째 토론자의 교차조사
5. 긍정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문
6. 부정측 첫 번째 토론자의 교차조사
7. 부정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문
8. 긍정측 두 번째 토론자의 교차조사
9. 부정측 첫 번째 토론자의 반박
10. 긍정측 첫 번째 토론자의 반박
11. 부정측 두 번째 토론자의 반박
12. 긍정측 두 번째 토론자의 반박
13. 토론 내용 정리

3. CEDA 토론수업의 활용 사례

CEDA관련 토론수업은 미국을 중심으로 오프라인에서 많은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Moeller는 대학생들을 위한 발달심리학 강의에 CEDA토론방식을 사용하였는데, 기본적인 토론진행방법을 학습하고 긍정측 토론자의 발표와 부정측 토론자의 반박으로 이어지는 CEDA토론을 실시한 결과 긍정적인 학습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23]. 대부분 학생들은 토론방식의 수업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공식적인 논쟁발표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교육적 가치를 체험하였다. 국내에서는 조은순의 연구에서 인터넷 토론수업에 활용한 사례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10][11]. 조은순은 학생들이 인터넷 찬반형 토론수업 설계에서 조별로 주어진 토론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주장하며 인터넷상에서 CEDA형 토론을 하도록 하였다. 위의 [그림 1]과 같은 순서에 의해 토론을 실시한 결과 학생들은 인터넷토론수업에 좀

더 많은 경험과 튜터 역할이 중요함을 표현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인터넷토론에 대한 경험을 대학이전의 중등학교에서부터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표 2]는 CEDA형 수업모델의 필요한 구성단계와 내용 및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표 2. CEDA형 인터넷 토론학습 모델의 구성내용

단계	내용	
분석	토론학습내용관련	-학습주제와 토론 주제의 연계성 -인터넷토론의 타당성
	테크놀로지관련	-토론학습을 위한 환경 분석 (인터넷 실시간 토론환경 분석) -토론결과 정리
설계	-토론내용 명확화(학습자들의 공감대 형성) -진행방법의 체계화(적극적인 참여유도가 가능하도록 진행방법에 대한 명확한 제시) -토론내용과 평가의 연계성 (평가항목제시)	
상호작용	-구체적인 학습자 활동계획(역할, 시간 배정, 적극적인 상호작용) -토론을 위한 토론 그룹별 대화체계 형성	
개발 및 실행	-토론 주제, 하위내용, 참고자료 개발 -토론 진행자료 개발 -토론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토론 중 문제점에 대한 대책	
평가	-모듈별 7개의 CEDA 평가요소 적용 -전체 내용 분석 평가 -토론내용 피드백	

III. 연구방법 및 결과

1. 1차 연구

1차 연구의 목적은 본 연구의 연구문제 1에 해당하는 CEDA 인터넷 토론의 학습효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인터넷 수업을 듣는 다양한 사범대학 196명의 대학교 3학년 학생들이 2003년 가을학기에 '교육공학 및 교육방법'이라는 수업시 4인 1조로 인터넷 토론수업을 실시하였다. 토론 주제는 학생들 모두에게 관심이 될 수 있는 시사적인 내용으로 선정하였으며, CEDA 토론이 인터넷상에서 실시함에 학생들의 생소함을 고려하여 전체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온라인상에서만 토론을 실시하는 그룹과 오프라인 상에서 토론연습을 하고 온라인상에서 실제 토론을 실시하는 두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각 그

룹의 토론내용은 담당 과목 교수자와 1인의 전문가가 평가하였고 연구 결과는 CEDA 온라인 그룹과 CEDA 온라인 + 오프라인 그룹 각각에 대한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t 검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3]에서 보면 토론결과는 두 그룹 간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분석력에서 두 그룹 간 평균의 차이가 가장 컸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온라인: M=2.45, SD=0.96, 온+오프라인: M=2.62, SD=0.86, t=-1.943, p=.083). 각 평가항목별로 그룹 간 차이가 없는 점은 인터넷 공지를 통한 토론 방법 설명과 게시판을 통한 토론 방법 공지, 질의응답을 통하여 그룹별로 토론방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숙지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온라인 그룹과 온라인+ 오프라인 그룹간의 평가 항목별 평균점수의 커다란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음은 오프라인에서 토론 내용을 교환하되 실제 토론은 온라인상에서만 진행하도록 함으로서 오프라인 모임이 학생들에게 평가결과에 차이를 가져올 정도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CEDA 온라인과 오프라인 토론 결과분석

평가항목	CEDA 온라인		CEDA 온라인 + 오프라인		t	유의도 (p)
	평균(M)	표준편차 (SD)	평균 (M)	표준편차 (SD)		
분석력	2.45	0.96	2.62	0.86	-1.943	.083
증거	2.23	1.02	2.15	0.98	0.547	.564
반박	2.52	0.85	2.49	0.87	0.220	.824
교차조사	2.12	1.00	2.02	1.03	0.478	.435
내용구성	2.47	0.68	2.57	0.74	-0.782	.651
전달력	2.58	0.72	2.59	0.82	-0.129	.932

학생들에게 찬·반형 온라인 CEDA형식 토론과 기존의 개방 주제형(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하는 방법) 온라인 토론방법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 대다수 학생(약 72%)들이 주제형 토론형식보다 온라인 CEDA형 토론방식을 선호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시간절약(67%), 모든 조원의 참여도 향상(89%), 토론내용정리의 용이성(75%) 때문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학생 개인별로 분명한 역할(찬성 혹은 반대 입장)을 정하고 주어진 시

간 안에 토론을 끝내도록 한 진행방법이 결론 없이 지루하게 토론을 진행하는 기존의 개방형 토론방법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는 토론방법 선호에 대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표 4. 토론방법에 대한 선호도

항목	명	%	
CEDA 선호	141	72%	
개방 주제형 선호	55	28%	
CEDA선호 이유	시간절약	131	67%
	참여도 향상	174	89%
	내용정리용이	147	75%

1차 연구 결과 CEDA 인터넷 수업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학습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되며, 인터넷 CEDA형 토론은 온라인 그룹과 온+오프라인 그룹 모두에서 분석력, 증거, 반박, 교차조사, 내용 구성, 전달력의 6개 평가 항목별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학생들이 인터넷상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CEDA형 토론 방법에 대한 준비를 잘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실제토론이 온라인상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의견교환 연습이 평가결과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좀더 다른 각도에서 분석해보면,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메신저를 통하여 실제 토론에 앞서 자료교환이나 조별 연습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연습이 토론을 진행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법에 영향을 주기 보다는 토론내용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시했는가 하는 결과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결과 인터넷토론 수업에서 튜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는 2차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2. 2차 연구

2차 연구는 CEDA인터넷 토론수업시 튜터의 역할에 따라 토론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대상은 사범대학 3학년 학생 약 200명으로 2004년 가을에 인터넷상에서 CEDA 토론을 4인 1조로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미국교과서의 영어교재 채택은 바람직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찬성, 반대, 교차조사

(질의응답)를 메신저 상에서 진행하였다. 학생들의 실제 토론에 앞서 두 명의 교육공학 전문가인 튜터가 토론수업 전반에 대한 튜터링을 포함하는 일반 촉진자 역할과 토론진행방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선행 촉진자 역할로 나누어 조별 토론 활동을 지원하였다. 튜터 활동은 관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요청했던 '튜터의 적극적인 지원', '토론내용 및 방법에 대한 이해', '토론에 대한 학습동기 부족', '토론에 대한 경험부족'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11]. 일반 촉진자 역할은 촉진자로서 튜터의 기본 역할인 토론내용에 대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활동 및 피드백, 토론활동을 위한 학습동기 제공 등을 포함하였다, 선행 촉진자는 학습자들이 토론활동을 좀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토론진행 단계별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점을 미리 알려주고 각 그룹별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세우도록 독려했다. 토론결과는 1차 연구와 동일한 항목에 '스타일'을 첨가하여 7개 항목으로 평가하였다. 선행촉진자 그룹과 일반촉진자 그룹별 토론 결과에 대한 항목별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그룹별 토론내용에 대한 분석결과

항목	그룹	N	평균(M)	표준편차(SD)	t 점수	유의도(p)
분석력	1	28	2.75	.438	- 1.177	.242
	2	26	2.85	.363		
증거제시	1	28	2.85	.357	3.123	.002**
	2	26	2.54	.585		
토론구성	1	28	2.73	.449	3.567	.001***
	2	26	2.33	.634		
반론	1	28	2.73	.494	1.553	.124
	2	26	2.54	.657		
교차조사	1	28	2.85	.461	2.986	.004**
	2	26	2.54	.546		
전달력	1	28	2.94	.245	.797	.428
	2	26	2.89	.315		
스타일	1	28	2.96	.202	.892	.375
	2	26	2.91	.285		

그룹1: 선행 촉진자 그룹, 그룹2: 일반 촉진자 그룹, **p<.01, ***p<.001

[표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달력 (선행그룹: M=2.94, SD=.245, 일반그룹: M=2.89, SD: .315)과 스타일 (선행

그룹: M=2.96, SD=.202, 일반그룹: M=2.91, SD: .285)에서 두 그룹 모두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토론구성(선행그룹: M=2.73, SD=.449, 일반그룹: M=2.33, SD:.634)과 반론(선행그룹: M=2.73, SD=.449, 일반그룹: M=2.54, SD:.657)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얻었다. t검증 결과 증거제시(t=3.123, p=.002), 교차조사(t=2.986,p=.004), 토론내용 구성(t=3.567, p=.001)에서 튜터 활동에 따른 토론 결과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선행 촉진자 그룹이 관련 증거제시와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교차조사에서 일반 촉진자 그룹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토론내용 구성에서도 선행촉진자 그룹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선행촉진자 그룹의 토론진행에 대한 지원활동이 일반 촉진자 튜터 그룹보다 유효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분석력, 반론, 전달력, 스타일에서는 양 그룹간 차이가 없으므로 보아 CEDA 찬·반 형 토론에서 필요한 토론구성 요소들이 튜터 지원활동에 의해 좌우되기 보다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배양해야 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선행촉진자 그룹에서 우세했던 증거제시, 토론구성, 교차조사는 토론 스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는 튜터의 활동에 따라 학습결과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향후 토론 수업시 튜터역할과 활동전략 설계시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차 연구결과 인터넷 토론 학습에서 학습자들에게 일반적인 피드백과 학습동기를 제공하는 일반 촉진자 튜터보다 학습자들의 필요와 요구사항을 미리 예측하고 학습자 반응을 분석하여 튜터 활동을 지원하는 선행촉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활용한 CEDA형 토론과 같이 정해진 방법과 주어진 시간 안에 형식을 갖추어 토론을 진행해야 하는 수업에서는 잘 설계된 내용과 방법의 튜터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인터넷 CEDA 수업이 현장에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업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V. 인터넷 CEDA 토론수업 모델

1,2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 3인 인터넷 토론 수업에 적용 가능한 CEDA 토론수업

모델을 설계해보면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이 모델은 1,2차 연구를 바탕으로 대학에 적용 가능한 수업모델을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본 모델의 일반화를 위한 타당성과 객관성 검증은 별도의 후속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먼저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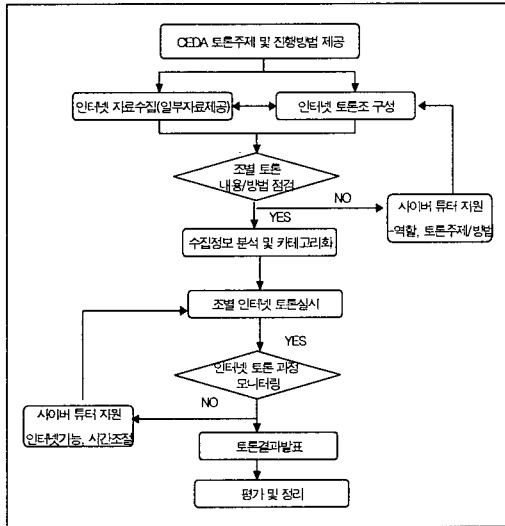


그림 3. 인터넷 CEDA 수업모델

수업모델의 각 항목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토론주제 및 방법 제공 : 토론주제는 학습자들이 쉽게 찬성과 반대의견을 가질 수 있는 ‘공교육의 발전을 위해 사교육은 필요하다’와 같은 시사성 있는 주제가 좋다. 또한 CEDA 토론이 주제에 대한 입론, 반론, 교차조사가 순서있게 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토론 방법에 대한 충분한 공지와 설명이 수반되어야 한다.
- 2) 토론조 구성 : 토론에 참여하는 조는 토론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편에 서는 학습자의 수가 일치하도록 배정(찬성2, 반대2)하여야 하며 1명의 조장이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배정해야 한다. 튜터는 조별 토론 내용과 방법을 점검한 다음 문제가 예상되면 이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 3) 조별토론내용 및 방법 점검 : 조별로 토론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 튜터

가 점검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토론내용과 방법이 잘못되면 토론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튜터가 점검할 수 있도록 조별로 간단하게 계획서를 쓰고 이를 튜터가 점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 4) 수집 정보분석 및 카테고리화 : 수집된 정보는 토론 주제에 따라 찬성과 반대 혹은 세부 주제에 따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별 혹은 개별학습자가 어떻게 정보를 활용할 것인지 정한 다음 수집 정보를 다시 작은 주제로 카테고리화한다. 즉, 반대 입장이 라면 왜 반대하고 어떤 근거로 반대를 하며 조별, 개인별 입장이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카테고리화 하여 토론 실시 준비를 한다.
- 5) 조별 인터넷 토론실시 : 토론은 정해진 시간에 실시 하며 학습자들은 모두 인터넷에 접속하여 메신저 혹은 다른 방법의 동시통신도구를 이용하여 토론을 진행한다. 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을 근거자료와 함께 입론, 반론, 교차조사의 과정을 거치며 토론을 실시하게 된다. 토론내용은 별도로 저장하여 결과보고와 평가자료로 사용한다.
- 6) 토론과정 모니터링 : 학습자들의 토론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서 조별로 토론을 재실시 할 수도 있다. 성인학습자의 경우에는 의견 충돌이나 조원불참석 등과 같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만 연령이 어린 학습자의 경우 토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토론진행이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튜터의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 7) 토론결과발표 : 조별로 실시한 토론결과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어떤 의견들이 오고갔는지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조별로 토론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를 인터넷상에 올리고 결과에 대한 튜터의 피드백과 수정사항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8) 평가 및 정리 : 토론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튜터의 평가를 저별, 개별학습자에게 피드백 해주어 토론진행시 문제점, 개선점을 확인하고 토론활동 점수도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다음 토론 활동시 필요한 내용을 튜터가 별도로 정리하여 다음 토론실시에 반영하도록 한다.

V. 결론 및 제언

토론 수업에 대한 필요성과 활용이 확산되고 있기는 하지만 수업현장의 물리적, 제도적 한계점과 토론에 대한 교수자의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의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토론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11][28]. 이러한 토론학습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 중의 하나로 본 연구의 1,2차 연구결과 및 이를 바탕으로 설계된 CEDA형 인터넷 토론학습 모델은 학습자들의 사고력과 논리성의 체계를 세우고 분석을 통한 근거를 중심으로 표현력을 향상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토론학습이 원활히 진행되고 토론학습에 많은 경험을 축적하지 못한 학습자들을 위하여 튜터의 지원이 필요하며, 토론학습에 있어서 인터넷의 활용은 학습자들에게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는 것도 알 수 있었다.

1차 연구에서 온라인 그룹과 온라인 + 오프라인 그룹 간의 유의미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던 것도 위에서 지적했듯이 의견을 교환하고 연습을 하는 방법의 차이보다는 실제 토론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토론내용 설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인터넷 토론학습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것을 인정한 것이나 토론을 위한 인적(사이버튜터, 조장 등), 물적(참고자료, 인터넷 기능 강화 등) 지원 시스템을 요청한 것은 온라인 토론을 통한 좀 더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학습결과를 위해서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강화해야할 요소들이 많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CEDA 형 토론 방법이 온라인상에서의 토론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고, 토론 조원들 간의 상호작용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한다는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인터넷 상에서의 CEDA형 토론에 대한 긍정적인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결과는 학생들이 개방 주제형 토론방법에 비해 CEDA형 토론방법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인 것과, 토론 학습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시간부족과 참여도에 대한 문제점이 CEDA형 토론학습 모델의 적용으로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학습자들이 토론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온라인 토론에 대한 부

담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한 2차 연구 결과 인터넷 토론 학습에서 학습자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습동기를 제공하는 일반 촉진자 역할의 튜터보다 학습자들의 필요와 요구사항을 미리 예측하여 제공하고 학습자의 반응을 분석하여 튜터 활동을 지원하는 선행촉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활용한 CEDA형 토론과 같이 정해진 방법과 주어진 시간 안에 형식을 갖추어 토론을 진행해야 하는 방법에서는 미리 설계된 내용과 방법의 튜터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동안 인터넷 학습에서 튜터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들은 많이 있었지만 특히 토론 학습에서 구체적인 튜터 전략에 대한 연구는 많이 없었다, 이는 인터넷 학습에서 토론이 종종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이 토론을 단지 채팅이나 일반적인 대화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한 활동으로 생각함으로써 튜터의 역할을 미미하게 만든 것도 원인이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CEDA형의 토론은 학습자들이 사전에 준비하고 방법을 습득하지 않으면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튜터의 역할이 중요하며, 튜터 활동도 좀 더 구체적인 전략과 설계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져야 학습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터넷 CEDA 토론 수업 모델은 대학생수업에 적용 가능한 현장 적용형 수업모델이라 할 수 있다. 대학생들이 초, 중등학교부터 토론수업에 익숙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여 대학생들에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CEDA 수업모델과 같은 토론의 기회가 풍부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로 추론할 수 있는 토론학습에 대한 중요 시사점으로는 첫째, 토론학습의 기본 원리와 토론학습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자들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규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 토론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을 분석력, 증거, 반박, 교차조사, 구성, 전달력으로 정한 것처럼 학생들이 토론과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며 이것이 토론의 기본 원리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능력이 향상되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토론 진행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학습자들의 숙지가 토론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처럼 초, 중등 학교수업에서 토론이 보편화

되지 않은 우리나라 실정에서 갑자기 대학생이 되었다고 토론에 익숙해질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자신의 의견을 일반 대화식으로 정리 없이 피력하기 보다는, 정해진 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분석하고 질의하는 과정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대화능력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일 것이다. 세 번째, 정해진 시간 안에 자신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종합 정리하고 상대방을 분석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인터넷 토론수업의 다양한 모델 개발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CEDA형의 토론 수업모델을 제시하였지만 토론활동이라는 특성상 학습자의 연령별, 교과목별로 학습자의 연령에 따른 다양한 모델이 만들어 져야 할 것이다. 인터넷상에서의 토론수업이 교실수업보다 단지 시간과 공간 활용이 자유롭기 때문에 인터넷 수업에 적용되어서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토론학습에 대한 경험이 교수자 학습자 모두에게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짜임새 있고 체계화된 토론학습 모델을 수업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네 번째, 토론학습에 대한 결과분석과 피드백, 학습자 상호간 토론결과의 공유가 인터넷 토론학습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다. 현재 토론학습이 현장에 적용되기 가장 어려운 점이 수업시간 부족이라는 지적을 상기하면, 토론학습을 기획하여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하기까지에는 교수자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이를 다시 학습자들에게 피드백하고 결과를 상호 공유하도록 하기에는 더욱 많은 시간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면 인터넷수업에서 토론진행과 결과분석, 정보공유가 용이해질 수 있다. 물론 성능이 좋은 학습관리 시스템의 도입과 이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교수자와 학습자들의 자세는 기본이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인터넷 토론학습으로 좋은 학습결과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즉 사이버 튜터의 적극 활용과 참고자료의 제공, 실시간 토론을 위한 인터넷상에서 기능강화 등 교수자와 학습자들이 토론학습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반 시스템이 지원되어야 인터넷상에서 토론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으로, 사이버 가정학습체제와 같은 인터넷수업의 확산과 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것과 같은 학습자 참

여중심, 활동 중심의 토론학습과 같은 중요성에 대한 부각은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인터넷 토론학습모델의 개발과 실행지침을 시급히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의 이전 경험이 그다지 많지 않은 학습자중심 학습활동, 발표력위주 수업등과 같은 새로운 시도들을 하루빨리 연구하고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 중 토론학습, 특히 인터넷상에서의 토론학습에 대한 고민은 학생들의 사고력, 논리력, 분석력, 표현력 신장이라는 기초능력향상을 위하여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연구주제이다.

참고 문헌

- [1] 강태완, 김태용, 이상철, 허경호, **토론의 방법**,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1.
- [2] 김민경, 노선숙, 이준엽, “양방향 대화 방식의 웹 사이트를 통한 수학교육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교육공학연구**, 제14권, 제3호, pp.81-104, 1998.
- [3] 박인우, “대학교육에서 인터넷 가상토론의 비동시성과 토론자의 내향성/외향성간의 상호작용 효과 연구”, **교육공학연구**, 제14권, 제2호, pp.25-49, 1998.
- [4] 박인우, 김미향, “동기적 거상토론에서 익명성이 토론 내용의 논증과 부정적 발언에 미치는 영향”, **교육공학연구**, 제16권, 제2호, pp.25-49, 2000.
- [5] 박인우, 고은현, “동시적 온라인 토론에서 익명성과 도덕성이 발언에 미치는 영향”, **교육공학연구**, 제17권, 제4호, pp.3-22, 2001.
- [6] 박진규, 주영훈, 남현우, **신세대를 위한 교육학**, 서울: 지선사, 1999.
- [7] 이성호, **교수방법론**, 서울: 학지사, 1999.
- [8] 이옥화, 임연옥, “온라인 수업의 실시간 토론 내용 분석”, **교육공학연구**, 제19권, 제1호, pp.29-50, 2003.
- [9] 임정훈, “웹기반 가상수업에서 온라인 토론 촉진을 위한 설계전략 탐색”, **교육학연구**, 제37권, 제2호, pp.219-233, 1999.
- [10] 조은순, “인터넷 토론 학습방법의 탐구: 미국 CEDA(Cross 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

- 토론모델의 인터넷 대학 수업적용 사례분석”, 교육정보방송연구, 제9권, 제4호, pp.5-32, 2003.
- [11] 조은순, “인터넷 CEDA(Cross 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 토론수업에서 튜터활동에 따른 학습결과 분석”, 교육정보방송연구, 제11권, 제3호, pp.67-87, 2005.
- [12] 조은순, 양윤선, “기업 e-Learning에서 튜터의 학습동기 유발 전략에 따른 학습결과 및 상호 작용 분석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공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건국대학교: 서울, 2004.
- [13] 최옥, 김민수, “인터넷활용 문제중심 논쟁수업 모형 개발”, 교육정보방송연구, 제9권, 제2호, pp.101-134, 2003.
- [14] 최성희, 전영국, 정혜선, 통신망의 교육적 활용: 이론과 실제, 서울:학지사, 2000.
- [15] 최성희, “통신망 기반 협동학습의 모형 탐색 및 사례연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제15권, 제3호, pp.199-220, 1999.
- [16] S. D. Boorkfield and S. Preskill, *Discussion as a way of Teaching: Tools and techniques for democratic classroom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 1999.
- [17] M. Collins and Z. L. Berge, “Facilitating interaction in computer-mediated online courses,” AECT distance Education Conference, Tallahassee, FL 1996.
- [18] K. Conrad and T. Links. *Instructional design for web-based training*, Amherst MA: HRD Press, 2000.
- [19] M. E. Gredler, *Learning and Instruction: Theory into Practice*,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 Prentice Hall, 2001.
- [20] N. Harrison, *How to design self-directed and distance learning programs*, New York: McGraw-Hil, 1999.
- [21] D. Hessian, “Online Learning Communities: Moving from Events to Real and Continuous People Development,” Paper Presented at American Society for Training and Development at Orlando Florida, 2001.
- [22] C. M. Mehrotra and C. D. Hollister, and L. Mogahey, *Distance Learning: Principle for effective design, delivery, evaluation*, Thousand Oaks, CA: Sage Pub, 2001.
- [23] T. G. Moeller, *Using classroom debates in teaching developmental psychology*, Teaching of Psychology, Vol.12, No.4, pp.207-209, 1985.
- [24] M. G. Moore, “Three types of interaction,” In Harry, K. John, M. and Keegan, D.(Eds.), *Distance Education: New Perspective*. London: Routledge 1993.
- [25] L. Y. Muilenburg and Z. L. Burge, “Designing Discussion for the Online Classroom,” In Rogers, P.L(Ed.), *Designing Instructional for Technology-Enhanced Learning*, Hershey, PA: Idea Group Pub. 2002.
- [26] R. M. Palloff and K. Pratt, *Lessons From the Cyber space Classroom : The Realities of Online Teaching*,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feiffer, 2001.
- [27] J. Redfield, *On discussion teaching.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2002.
- [28] R. D. Rieke and M. O. Sillars, *Argumentation and critical decision making*, Boston, MA: Addison-Wesley Pub. 2000.
- [29] G. Salmon, *E-moderating: The key to teaching and learning online*, London: Kogan Page, 2000.

저 자 소 개

조 은 순(Eun-Soon Cho)

정회원



- 1992년 : 미국 Connecticut 주립대 교육공학(박사)
 - 현재 : 목원대학교 교직학/교육대학원 교수
- <관심분야> : 이 러 닝